

조사의 핵성*

김 용 하
(안동대학교)

Kim, Yong-Ha. 2011. The Headness of Particles in Korean. *Linguistic Research* 28(2), 271-288. This paper tries to support the claim that Korean (case) particles are heads. In doing this, it criticizes the opposite approach that claims Korean (case) particles are not heads. Thus, this paper reviews the recent debates carried out between Han (2003, 2010) and Lim (1991, 2008), and proposes that the head of a syntactic object should be determined in terms of its distribution. Under this proposal, the claim that Korean particles head their own projection seems to be on the right track. (**Andong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particles, case particles, headness, projection, distribution, DP hypothesis

1. 들머리

‘명사구 + 조사’ 구성에서 조사가 핵의 지위를 차지하고 명사구가 조사의 보충어(complement)가 된다는 분석은 1980년대 말 이래로 상당한 설득력을 얻어 왔다 (Ahn 1988, 임동훈 1991). 특히 국어학계에서는 이러한 조사구를 KP로 분석하는 임동훈(1991)의 주장으로부터 대체로 조사구를 인정하는 분위기였다(최규수 1994, 임흥빈 1997). 그런데 이러한 흐름에 대해 한정환(2003)이 반기를 들고 나왔고 이에 대해 임동훈(2008)이 반박을 하고 엄홍준(2010), 한정환(2010)이 재반박을 하면서 명사구와 조사가 결합된 구성체의 핵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진행되어 왔다. 본고는 조사가 핵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임동훈(1991, 2008)의 주장을 옹호하면서 (적어도 일부의) 조사가 ‘명사구 + 조사’의 구성에서 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반론을 비판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한정환(2003, 2010)의 주장들인바, 그의 주장 혹은 반론의 부당성을 명백히 밝힐 것이다. 또한 엄홍준(2010)의 반론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사구 + 조사’ 구성에서 조사가 핵이 아니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할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 익명의 심사자들의 논평이 논문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감사드린다. 물론 논문의 잘못은 전적으로 필자의 몫이다.

같다. 2절에서는 조사의 핵성과 관련한 논쟁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3절에서는 핵과 투사체의 관계가 분포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4절에서는 구조격 조사가 핵이 될 수 있음을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보여준다. 5절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2. 조사의 핵성과 관련된 쟁점들

임동훈(1991)은 핵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격조사를 핵으로 볼 수 있다는 적극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조사의 핵성을 옹호한다. 핵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가 무엇인지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가 제시한 적극적 증거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임동훈(1991)은 대부분의 격조사가 서술어의 어휘적 속성에 따라 선택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 (1) a. 쌈바키는 민들레와 비슷하다.
 b. 그 옷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c. 점원이 사장처럼 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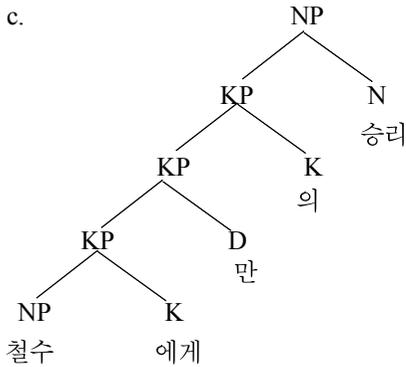
(1)에서 보듯 ‘와,’ ‘에,’ ‘처럼’ 등은 후행하는 서술어에 의해 선택되는데 만약 격조사를 핵이 아니라 부가어라고 한다면 이러한 선택관계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둘째, 일부 격조사는 선행 명사구와 일치 관계를 보인다. 처격 조사 ‘에게’와 ‘에’는 선행 명사구의 유정성에 따라 교체되며, 주격 조사 ‘이/가’와 ‘께서’는 선행 명사구의 존칭성에 따라 교체된다.

셋째, 격조사는 선행 성분으로 올 수 있는 범주가 제약되어 있다. 즉 격조사는 그 선행 성분으로 NP나 KP만 취한다. 핵이 특정한 하위범주화 틀을 갖고 있다고 본다면 이처럼 제약된 선행 성분의 범주는 격조사가 핵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조사구를 포함하는 한국어 명사구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구 구조 규칙과 표상으로 나타낼 수 있다(cf. 이정훈 2008).

- (2) a. $KP \rightarrow NP + K$
 b. $KP \rightarrow KP + K$



(2c)의 명사구에는 속격 KP가 포함되어 있고 이 KP가 전형적인 조사구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철수에게”라는 하위 구성체와 “철수에게만의”라는 전체 구성체에 붙은 범주 명칭은 모두 KP지만 “철수에게”의 핵은 ‘에게’이고 “철수에게만의”의 핵은 ‘의’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결국 임동훈(1991)은 ‘만’과 같은 보조사는 자체의 투사를 이끌지 못한다고 보고 있어서 모든 조사가 언제나 핵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다 할 것이다.

국어학계에서는 아마도 임동훈(1991)의 연구가 조사를 핵으로 보자는 최초의 논의일 것이다. 물론 생성문법에 입각한 연구로서 조사의 핵성을 주장한 것으로는 Ahn(1988)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임동훈(1991) 이후로는 조사가 핵이라는 데 대해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학계에 대체적인 동의가 있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0년 이상 시간이 흐른 후 한정환(2003)이 조사의 핵성을 주장하는 연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일부의 격조사만이 핵일 뿐 모든 격조사가 핵일 수는 없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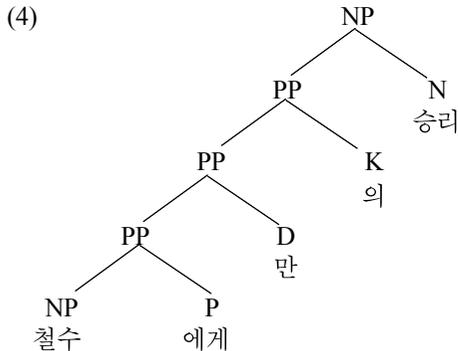
한정환(2003)은 우선 격조사를 논항 표시 조사와 부가어 표시 조사로 나눌 것을 제안하고 이 둘 중 부가어 표시 조사만이 핵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을 고려해 보자.

- (3) a. 아이들이 방에서 놀고 있다.
- b. 아이들이 집에서 나갔다.

(3a)의 ‘방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든 해당 문장의 서술어 ‘놀다’의 논항이라고 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부가어일 것이다. 한정환(2003)은 이때의 ‘에서’를 독자적으로 ‘방’을 의미역/격 지배하는 핵으로 보며 그 범주는 후치사(postposition)라고

분석한다. (3b)의 ‘집에서’는 출발점에 해당하는 의미역을 가진, ‘나가다’의 논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한정환(2003)은 이때의 ‘에서’가 ‘나가다’의 어휘개념구조(LCS; lexical conceptual structure)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핵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만일 위에서 살펴본 (1)의 밑줄 친 조사들도 논항 표시 조사라면 역시 핵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한정환(2003)의 주장에 따르면 ‘에,’ ‘에서,’ ‘에게,’ ‘와’ 등은 동반하는 서술어에 따라서 논항 표시 조사가 될 수도 있고 후치사가 될 수도 있다. 또한 한정환(2003)에 따르면 주격 조사 ‘이/가’와 대격 조사 ‘을/를’ 그리고 속격 조사 ‘의’는 전형적인 논항 표시 조사이므로 결코 핵으로 등장하는 일이 없다. 따라서 한정환(2003)에 따르면 ‘철수에게만의 승리’라는 구성체는 다음과 같이 표상될 수 있다.²



위와 같은 한정환(2003)의 반격에 대해 임동훈(2008)은 재차 반론을 제기한다. 임동훈(2008)에 따르면 한정환(2003)의 주장은 Jolly(1993)와 Van Valin · LaPolla (1997)의 역할 · 참조 문법(role and reference grammar)에 입각한 영어 전치사 분석에 기댄 바 크다. 이들의 역할 · 참조 문법 식 분석의 선악은 차치하고라도, 한국어 격조사의 핵성을 따질 때 영어 전치사와 같은 어휘 범주를 대상으로 제기된 논의를 국어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임동훈(2008)의 생각이다.³ 이러

1 여기서 후치사는 인구어의 전치사(preposition)에 해당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후치사에 대한 다른 방식의 정의는 임동훈 2004를 참조하라.

2 (4)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한정환(2003)이 보조사 ‘만’이 포함된 ‘철수에게만’이라는 하위 구성체의 범주를 PP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정환(2003)에 따르면 보조사는 논항을 취하는 함수자(funcutor)이지만 핵은 될 수 없다고 한다.

3 임동훈(2008)의 비판 대상에는 김영희(1999)의 분석도 포함된다. 하지만 논의의 일관성을 위해서 본고에서는 한정환(2003)에만 집중하고자 한다.

한 임동훈의 생각은 ‘에게’와 같은, 학교 문법에서 부사격 조사라 칭하는 일련의 조사들을 후치사가 아닌 격조사로 취급하고 있는, 조사에 대한 그의 체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임동훈(2008)은 임동훈 1991에서 제시하지 않은, 격조사의 핵성을 지지하는 몇 가지 추가 증거를 제시한다. 우선 아래 (5)에서 보듯, 격조사가 생략될 수 없는 경우나 격조사가 생략되면 그 분포나 문법적 기능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 (5) a. 철수에게만의 승리
- b. *철수에게만 승리

임동훈(2008)에 따르면 (5)에서 ‘의’는 생략될 수 없을뿐더러 ‘철수에게만의’와 ‘철수에게만’의 분포와 통사적 기능이 다르다. 이는 격조사를 한정한(2003)처럼 부가어로 보아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둘째 동일한 의미역에 대해 격조사가 교체되는 예들이 있다. 아래 (6)을 보라.

- (6) a. 아이가 집에서/집을 나왔다.
- b. 그이가 술에서/술이 깬다.

위에서 ‘집’과 ‘술’은 모두 출발점 의미역을 지닌 것으로 해석되는데 의미역에 기반한 규칙으로는 이런 격조사 교체를 설명할 수가 없다. 임동훈(2008)은 ‘나오다’나 ‘깨다’의 어휘 내향에 ‘X-에서/을’이나 ‘X-에서/이’와 같은 격틀 정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임동훈(2008)은 절이 보충어로 등장할 때 보문소를 핵으로 보듯이 이에 대응하는 조사도 핵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아래 (7)이 대표적인 예이다.

- (7) a. 기계가 *(고물이) 되었다.
- b. 기계가 못 쓰게 되었다.
- (8) a. Lee’s belief in extraterrestrials is misguided.
- b. Lee’s belief that there are extraterrestrials is misguided.

(7b)에서 ‘못 쓰게’의 ‘게’가 핵이라면 (7a)에서 ‘고물이’의 ‘이’도 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동훈(2008)은 (8a,b)에서 ‘in’과 ‘that’이 핵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다.

한정환(2010)은 이와 같은 임동훈(2008)의 재반박에 다시 응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그는 임동훈(2008)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비판하면서 (5)와 같은 예에서 ‘의’의 실현이 필수적인 것은 ‘의’의 실현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위에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9) a. 여성 잡지, 컴퓨터 책상, 축구공 가방, 박정희 정부, 아침 산책
- b. 문제(의) 해결, 우주인(의) 비행, 교회(의) 종소리, 예루살렘(의) 성지, 인도(의) 간디
- c. 철수*(의) 승리, 마음*(의) 소리, 자연*(의) 노래, 사랑*(의) 힘, 평화*(의) 종소리

(9a)는 ‘의’의 실현이 불가능한 예들이고, (9b)는 ‘의’의 실현이 수의적인 경우이며, (9c)는 ‘의’의 실현이 필수적인 예들이다. 한정환(2010)은 ‘의’의 출현과 비출현에 대해 이런 전반적인 고찰에 의거하지 않고 단순한 예들끼리만 비교한 임동훈(2008)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정환(2010)은 또한 의미역에 기반한 격 실현 이론으로도 ‘집에서/집을 나오다’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설정하는 격 실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0) a. 의미역 위계에 의한 논항의 격 실현
- b. 의미역에 의한 논항의 격 실현
- c. 격 표지 또는 양태 조사에 의한 격 실현

한정환(2010)은 ‘집을 나오다’의 경우는 (10a)에 의한 격 실현이어서 ‘을’을 생략할 수 있지만, ‘집에서 나오다’의 경우는 (10b)에 의한 격 실현이어서 ‘에서’를 생략하면 해당 조사의 의미가 손상되어 버린다고 본다.⁴

마지막으로 한정환(2010)은 ‘되다’ 구문의 두 번째 성분의 주격 조사는 생략될 수 있으므로 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임동훈(2008)의 주장대로 ‘못 쓰게 되었다’의 ‘게’는 생략될 수 없으므로 핵일 수 있지만, ‘이 기계가 고물이 되었다’에서 ‘고물이’의 ‘이’는 생략될 수 있으므로 핵이 아닌 것이다.⁵

4 필자는 한정환(2010)의 이러한 격 실현 기제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정환(2010)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의미역과 격 실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해야 하므로 본고에서는 이 격 실현 문제에 대한 비판을 삼가고자 한다. 물론 이렇게 비판을 삼가는 것은 굳이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도 격조사의 핵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충분히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다.

5 한정환(2010)은 학교 문법의 체계대로 이 경우 ‘고물이’의 ‘이’를 주격 조사가 아닌 보격 조사로 보고 있다. 필자는 이를 보격 조사로 보지 않지만 이 또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11) 이 기계 고물 됐다.

한정한(2010)은 논항을 표시하는 조사인 한 통사 핵이 될 수 없다는 자신의 입장을 이처럼 굳건히 견지한다.

한편, 임동훈과 한정한 간의 논쟁에 이어서 엄홍준(2010)도 다른 격조사는 몰라도 구조격 조사는 핵이 아니라고 하면서 논쟁에 끼어든다. 그는 임동훈(1991, 2008)이 제시한 조사의 예들이 이른바 부사격 조사들인바 이들 조사들은 특정 서술어가 선택하는 구의 핵이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아래에 다시 인용된 (1)의 예들에서 밑줄 친 조사들이 핵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사라는 것이다.

- (12) a. 쏟아지는 민들레와 비슷하다.
 b. 그 옷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c. 점원이 사장처럼 군다.

하지만 구조격 조사들의 경우에는 특정 서술어가 해당 격조사가 이끄는 구를 선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아래 예들에서 보듯 상이한 범주와 의미역 가진 요소가 구조격 조사인 대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예의 대격 조사가 특정 의미역과 결합하는 고유격의 경우라 보기는 어렵다.⁶

- (13) a. 철수가 영희를 안다.
 b. 철수가 영희가 떠났음을 안다.
 c. 철수가 그것을 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구조격 조사는 해당 명사구의 격을 표시하는 역할을 할 뿐, 자체의 투사를 이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엄홍준(2010)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조사의 핵성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아래의 절들에서는 조사의 핵성을 부정하는 입장들을 비판하고 조사를 핵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옹호하고자 한다.

6 최동주(1997) 역시 비슷한 이유로 격조사의 핵성을 거부한다.

3. 핵, 투사체, 그리고 분포

격조사가 핵임을 주장하는 임동훈(1991, 2008)을 비롯하여 한정환(2003, 2010), 엄홍준(2010) 등은 기존 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정립된 핵의 특성을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정립된 핵의 특성은 임동훈(199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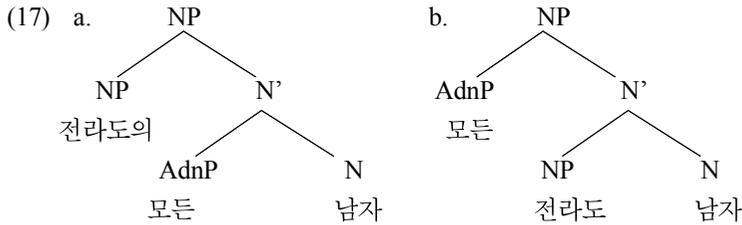
- (15) a. 핵의 분포는 전체 구성의 그것과 동일하다.
- b. 핵은 수의적 성분이 아니라 필수적 성분이다.
- c. 핵은 수식하거나 한정하는 성분이 아니라 수식받거나 한정 받는 성분이다.
- d. 핵은 전체 구성의 형태·통사적 자질을 결정한다.
- e. 핵은 지배와 호응의 중심 성분이다.
- f. 핵은 함수자(function)로서 논항을 취한다.
- g. 핵은 그 통사적 출현 환경이 제약되어 있다.
- h. 핵은 x^0 의 범주로서 자신의 어휘적 속성에 따라 투사하여 통사적 구성을 형성한다.

(15)에 제시된 핵의 특성들은 언어학에서 논의되어 온 것들을 잘 정리하여 내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임동훈(1991, 2008)도 한정환(2003, 2010)도 (15a)를 핵심적인 정의에서 제외시킨다. 특히 한정환(2003)은 분포 차이의 원인이 비통사적일 때는 (15a)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다.⁷ 과연 통사체(syntactic object)의 분포 차이의 원인이 비통사적인 경우가 존재하긴 하는가? 한정환(2003)은 최경봉(1999)을 인용해서 ‘시멘트 바닥’이나 ‘소금 물’과 같이 속성-대상의 의미 관계로만 구성 성분들이 결합되면 이 구성 사이에 ‘의’나 다른 수식어들이 삽입될 수 없음을 언급하고, ‘마음의 소리, 자연의 노래’ 같은 예들처럼 후행 명사의 의미 특성이 추상성을 띠고 있거나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에는 ‘의’의 실현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한정환(2003)은 이러한 최경봉(1999) 식의 설명에 분명한 호의를 보이고 있는바, 이런 식의 설명이 그의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한정환은 ‘*시멘트의 바닥’에서 ‘시멘트의’라는 속격 조사 결합형이

7 임동훈(1991)은 (15a)가 기능 범주를 구명하는 데 무력하고 어휘 범주에서도 전치사구는 다른 어휘 범주들과 달리 이심적 구성(exocentric construction)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15a)를 핵심적인 정의에서 배제한다. 필자는 왜 (15a)가 기능 범주를 구명하는 데 무력한지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또한 전치사구의 이심성은 Bloomfield(1933) 시대의 문법 분석이 가진 한계 탓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불가능하고 ‘시멘트’라는 속격 조사 부재형만이 가능하다는 분포적 차이가 의미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이 속격 조사 결합형과 속격 조사 부재형의 분포 차이를 진실로 설명하는 방법이 결코 될 수 없다고 본다. 만일 속격 조사의 출현이 구조와 관련되어 있고 해당 구조에 따라서 의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더 나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속격 조사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를 구조의 차이로 포착하고자 한 김용하(1990)의 분석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⁸

- (16) a. 전라도의 모든 남자
 b. 모든 전라도 남자



김용하(1990)는 속격이 겹으로 드러나지 않은 NP가 명사의 수식어가 될 경우 보충어 위치에 생성되고 속격이 겹으로 드러난 NP가 명사의 수식어가 될 경우 지정어 위치에 생성된다고 보았다. (16a)와 (16b) 간의 의미 차이는 바로 이러한 NP 위치에 의한 것으로서 (17a)의 구조를 가진 ‘전라도의 모든 남자’에는 ‘전라도에 사는 경상도 남자’가 포함될 수 있으나 (17b)의 구조를 가진 ‘모든 전라도 남자’에는 ‘경상도에 사는 전라도 남자’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18) N의 보충어 위치에서 전형적으로 해석되는 의미와 N의 지정어 위치에서 전형적으로 해석되는 의미는 다를 수 있다.

물론 (18)로써 핵 명사 앞 명사구와 핵 명사 간의 의미 관계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18)과 같은 일반화, 그리고 (17)의 구조를 통한 (16)의 의

⁸ 한 심사위원은 (17)이 필수 구구조 이론으로 포착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고의 논의가 반드시 최소주의 프로그램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17)의 구조는 전통적인 X'-식형에 따른 것으로 보일 것이다. 다만 편의상 아주 세부적인 부분-예를 들어 (17a)의 ‘모든’은 부가어이지 보충어가 아니다-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최소주의 하에서의 한국어 속격 실현 문제는 김용하(1999)를 참조하라.

미 규명은 구조의 파악이 의미 관계 규명에 선행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정한(2003)의 입장이 가지는 불합리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철수에게만’과 ‘철수에게만의’ 간의 분포 차이를 통사 범주의 차이로 보지 않으려고 애쓴다. ‘철수에게만의 승리’에서 ‘의’가 출현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한정한(2003)에 따르면 아래에 다시 인용된 (9c)의 예들과 동일한 이유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19) 철수*(의) 승리, 마음*(의) 소리, 자연*(의) 노래, 사랑*(의) 힘, 평화*(의) 종소리

필자는 ‘사랑의 힘’과 ‘철수에게만의 승리’를 두고 수식어-핵 명사 의미 관계를 어떤 점에서 한데 묶을 수 있는지 도통 알지 못하겠다. 필자는 한정한(2003, 2010)이 다음과 같은 예들을 자신의 분석 틀 안에서 설명할 수 있을지 무척 의심스럽다.⁹

- (20) a. 철수가 도시에서 탈출했다.
b. 철수의 도시에서의 탈출
(21) a. 철수가 도시를 탈출했다.
b. 철수의 도시(의) 탈출

(20a)에서 ‘도시에서’와 ‘탈출하다’가 맺고 있는 의미 관계가 (20b)에서 ‘도시에서의’와 ‘탈출이’ 맺고 있는 의미 관계와 다르다고 볼 수는 없을 터, ‘에서’는 ‘탈출’의 LCS로부터 예측 가능할지 모르나 ‘의’의 출현은 예측 가능하다 할 수 없다. (21a)와 (21b)도 일정한 대칭성을 보이는데, 여기서 왜 ‘의’의 출현이 필수적이지 않은가? 한정한(2003, 2010)과 같은 의미론적 접근법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다.

한정한(2003, 2010) 식의 분석은 아주 근본적으로, 다음 예들의 문법성 차이를 설명하는 데도 곤란을 겪을 것이다.

⁹ (20b)는 “격이란 종속 명사가 그 핵에 대해 지니는 관계 유형을 표시하는 체계이다”라는, 한정한(2003, 2010)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격의 정의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도시에서’는 이미 핵에 대해 종속 명사가 지니는 관계 유형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 (22) a. 순희가 철수에게만 열렬히 사랑을 주었다.
 b. *순희가 철수에게만의 열렬히 사랑을 주었다.

(22b)의 비문법성은 무엇 때문인가? 한정환(2003)은 ‘철수에게만’과 ‘철수에게만의’ 간의 차이를 명사구 내부에만 국한해서 논의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고 있으나 그 논리로서 (17a)와 (17b)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 두 문장의 문법성 차이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법은 ‘의’가 해당 구성체의 핵이고, 이 핵의 특성 때문에 분포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15)에 제시된 핵의 특성들 중에서 한정환(2003)은 (15b)와 (15f)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15b)는 모르겠으되, 과연 (15f)가 (15)의 다른 모든 정의를 제쳐두고 인정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기준인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한정환(2003)이 (15f)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언명한 것은 의미 중심의 문법 이론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한정환(2003)은 투사하지 않는 범주는 핵이 아니라는 상당히 해괴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 한국어의 감탄사, 접속어, 관형사 등은 투사를 하지 않으므로 결코 핵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핵의 개념은 사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을 고려해 보자.

- (23) a. This book is mine.
 b. This is my book.

(23a)에서 ‘this book’는 DP이고 그 핵 ‘this’는 함수자이고 핵이다. (23b)에서 ‘this’는 DP를 이끄는 핵이자 그 자체로 최대 투사이다(Chomsky 1994). (23b)에서 ‘this’는 무엇에 대한 함수자이며 그 논항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또한 한정환이 결코 핵이 될 수 없다고 한 감탄사나 관형사도 자신 이외의 수식어와 함께 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¹⁰

- (24) a. 하느님 맏소사! 부처님 맏소사!
 b. 아이고 데이고
 (25) [아주 새] 책, [매우 현] 집

¹⁰ 한 심사자는 핵 개념의 핵심이 무한 귀환(infinite recursion)의 보장이라고 하면서 (24)의 예들이 제한적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필자는 무한 귀환성이 통사 구조 구축의 속성이지만 어떤 핵이 반드시 그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볼 때, 필자는 (15f)야말로 가장 불확실한 핵의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한정환(2003)은 의미 해석의 문제와 통사 구조의 문제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어떤 통사체의 범주적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분포에 의거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15a)야말로 어떤 통사체의 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어야 할 것이다.¹¹

4. 구조격 조사의 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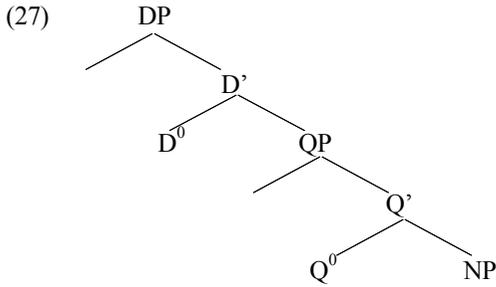
한정환(2003)은 구조격 조사가 논항 표시 조사라는 이유 때문에, 엄홍준(2010)은 구조격 조사가 서술어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조사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구조격 조사를 핵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절에서는 구조격 조사도 역시 핵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DP-가설이라는 특정한 가설 하에서 보여주고자 한다.

1980년대 중반 이래 기존에 NP라고 일컬어졌던 범주가 사실상 DP이고 그 핵이 D(determiner, 한정사)라고 하는 DP-가설이 제안되었고, 이는 생성문법에서 거의 정설로 인정되고 있다(cf. Abney 1987). 또한 Ahn(1988)이 DP-가설 하에서 구조격 조사를 D에 속하는 범주라고 주장한 이래 구조격 조사는 D에 속하는 범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어 왔다(Yang 1996, 김용하 1999, 2009).

김용하(1999)는 우선 Ahn(1988)이 X-lim이라 명명한 일련의 보조사들이 Watanabe(1992)가 D로 설정한 일본어의 조사들과 대응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정사에 대해 통사적으로 두 가지 구별되는 위치가 있다고 하는 Jackendoff(1972)의 주장, 그리고 DP 구조에 대한 Abney(1987)와 Murasugi(1991)의 분석에 기초해서, Watanabe(1992)는 DP가 (27)의 구조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 (26) a. *{Fred's/the/those/which} {some/any/no/each/all} dwarf(s)
 b. {Fred's/the/those/which} {many/few/several} dwarfs

¹¹ 만일 의미 해석으로 통사 구조를 결정해야 한다면 'a red hat' 같은 구성체는 등위 접속으로 표상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구성체의 의미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등위 접속 구조이기 때문이다(cf. Cormack · Smith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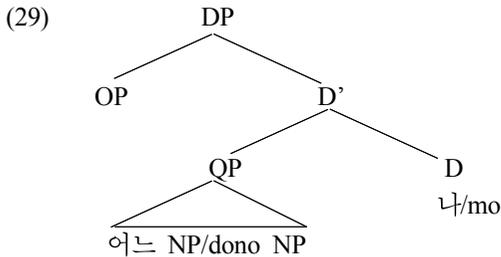
주지하다시피, (26a)의 양화사들은 관사, 지시사 같은 일련의 한정사들과 공기할 수 없어서 강 양화사(strong quantifier)라 불리며, (26b)의 양화사들은 그런 한정사들과 공기할 수 있어서 약 양화사(weak quantifier)라 불린다. Abney(1987)를 따라 Watanbe(1992)는 강 양화사를 D에 속하는 것으로, 약 양화사를 Q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그는 (27)과 같은 DP 구조를 결론적으로 내놓았다. 또한 비한정적 표현들이 진정한 양화사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결속되는 자유 변형이라는 Kamp(1984)와 Heim(1982)의 제안을 채택하여 영어와 일본어의 양화사를 단일하게 설명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일본어는 Kamp/Heim의 의미에서의 비한정적 표현들과, 진정한 양화적 효력(quantificational force)을 가지는 조사로써 다양한 양화적 표현들을 구성할 수 있다.

- (28) a. Wh-어구: dare ‘what,’ nani ‘what,’ doko ‘where,’ itsu ‘when,’ naze ‘why,’ dono NP ‘which NP’
 b. 존재 양화사: dare-ka ‘someone,’ nani-ka ‘something,’ doko-ka ‘somewhere,’ itsu-ka ‘sometime,’ naze-ka ‘for some reason,’ dono NP-ka ‘some NP’
 c. 보편 양화사: dare-mo ‘everyone,’ #nani-mo ‘everything,’ doko-mo ‘everywhere,’ istu-mo ‘whenever,’ *naze-mo
 d. 부정 극성어: dare-mo ‘anyone,’ #nani-mo ‘anything,’ doko-mo ‘anywhere,’ itsu-mo, *naze-mo, dono NP-mo ‘any NP’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 목록에 들어 있는 조사들이 진정한 양화적 효력을 제공하고, 그리하여 한정사 범주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김용하(1999)는 한국어 양화 표현들이 일본어의 그것들과 대응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 (28) a. Wh-어구: 누구, 무엇, 어디, 언제, 왜, 어느 NP
- b. 존재 양화: 누군가, 무언가, 어딘가, 언젠가, 어느 NP인가
- c. 보편 양화: 누구나, 무엇이냐, 어디(에)나, 언제나, *왜냐, 어느 NP나
- d. 부정 극성어: 아무도, 아무것도, 아무데도, #언제도, *왜도, 아무 NP
 도

일본어와 한국어의 이러한 상응을 감안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DP 구조를 설정할 수 있다.



한국어의 보조사들이 D라는 또 다른 증거는 Kang(1988)로부터 나온다. 한국어의 당나귀/지정어-결속 구문들을 설명하면서 Kang(1988)은 보조사 ‘이나’가 비한정 명사구에 보편 양화 효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래는 그의 예 중 하나이다.

- (30) 어느 비행기_i의 승객이나 그것_i이 안전하게 날기를 바란다.

여기서 Kang(1988)의 분석을 온전히 검토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어느 비행기’와 대명사 ‘그것’의 결속 관계는 영어에서 지정어-결속이 작동하는 방식과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Kang(1988)의 주장이다. 결국 이는 ‘이나’가 영어의 D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조사들이 D 범주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적 조사가 이들과 동일한 범주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우선 구조적 조사 ‘이/가,’ ‘을/를,’ ‘의’가 이들 보조사들과 대립하고 있다는 점, 즉 분포가 동일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구조적 조사와 분포 상 대립하는 보조사들은 다음과 같다.

- (31) 는, 도, 이야, 이나, 이라도 ...

이들 보조사들은 구조격 조사 ‘이/가,’ ‘을/를,’ ‘의’와 공기할 수 없는데 다음은 그 예들이다.

- (32) a. 아버지께만{*은이/*이는/*이라도가/*이이라도} 이 옷이 어울리신다.
 b. 아버지께만{은/이라도/이} 이웃이 어울리신다.
- (33) a. 순희가 철수한테만{*은을/*을은/*이라도를/*을이라도} 사랑을 준다.
 b. 순희가 철수한테만[은/이라도/을] 사랑을 준다.
- (34) a. 그것은 철수한테만{*은/*은의/의는/*이라도/*이라도의/*의이라도}의 승리이다.
 b. 그것은 철수한테만의 승리이다.

이처럼 구조격 조사들이 조사 결합 순서에서 D로 볼 수 있는 조사들과 동일하다면 이들은 D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목정수(2003)가 보여준 인구어 관사 체계와 구조격 조사 간의 대조는 구조격 조사가 D에 해당하는 요소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 (35) a. **Un** soldat français ne craint pas la fatigue
 a soldier French NE fear not the fatigue
 “A French soldier does not fear the fatigue.”
 b. **Le** soldat français ne craint pas la fatigue
 the soldier French NE fear not the fatigue
 “The French soldier does not fear the fatigue.”
- (36) a. 그 정도로, 불란서 병사가 지쳐서야 되겠습니까?
 b. 원래 불란서 병사는 피곤이 뭔지 몰라요.

(35)의 문장들은 나폴레옹의 발화라고 한다. 이들 문장에서 정관사와 부정관사는 공히 총칭적 표현으로 쓰이고 있으나 (35b)의 정관사 ‘le’는 프랑스 병사들을 다른 나라의 병사들과 대조되게 만드는 특별한 효과를 갖는다고 한다. (36)의 두 문장은 (35a,b)에 대한 의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36a)에서 주격 조사 ‘가’의 의미 효과는 프랑스어의 부정 관사에 상응하며, (36b)에서 화제 보조사 ‘는’은 프랑스어 정관사가 가지는 것과 동일한 대조 효과를 가진다.

- (37) a. Il était une fois **un** prince très malheureux: **le** prince aimait une
 it was one time a prince very unfortunate the prince loved a
 belle princesse qui ne l'aimait pas
 beautiful princess who NE him-loved not
 “There once was a very miserable prince: The prince loved a
 beautiful princess who did not love him.”
 b. 옛날에 (한) 임금**이** 있었어. 그런데 (그) 임금**은** 딸이 없었어.

(37a)의 선행 절은 존재 구문으로서 ‘왕자’의 존재가 신정보로서 도입되고 있는 반면 후행 절에서는 동일 실체가 정관사와 더불어 다시 언급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일종의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7b)의 두 문장은 (37a)와 비슷한 한국어의 문장들이다.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은 ‘가’를 이용해서 ‘임금’의 존재를 신정보로서 도입하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 동일 실체가 그 다음 문장에서 다시 언급되었을 때에는 해당 명사구에 ‘은’이 결합되어 있다. 우리는 프랑스어에서 본 상보적 분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만일 인구의 관사들이 DP를 이끄는 핵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분명한 대조들은 한국어의 구조적 조사도 동일한 D 범주의 핵이라고 할 충분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다.¹²

5. 결론

어떤 학문적 논쟁이 생산적인 것이 되려면 논쟁의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본질적 반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사의 핵성을 두고 근래에 벌어진 논쟁은 한국어 조사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매우 생산적인 논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조사의 핵성과 관련된 근래의 이러한 논쟁에서 중요한 쟁점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조사를 핵으로 취급하는 접근법이 옳다는 것을 주로 한정환(2003, 2010)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보여주려 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본고의 반박으로 인해 한정환(2003, 2010)의 주장 혹은 분석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의 주장 혹은 분석은 어떤 특정한 이론 모형을 전제로 했을 때는 충분히 옳은 것

¹² 대격 조사가 보여주는 관사와 상응한 효과는 여기서 제시하지 않는다. 자세한 논의는 목정수 2003을 참고하라. 속격 조사는 문제가 조금 복잡한데, 예의 관사 효과를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속격 조사의 유무가 대조 자매항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효과를 보인다는 점이 이남순(1988)에 의해 지적된 바 있고 존재 전제와의 상관성이 임흥빈(1981)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효과들 역시 관사/한정사에 전형적인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¹³ 이를 염두에 두고서 본고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조사를 핵으로 취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핵의 특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깊은데, 본고에서는 핵과 그 투사체의 분포가 동일하다는 것을 가장 기준이 되는 특성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통사 구조를 의미 해석에 기초해서 해명하려는 시도는 성공적일 수 없다는 것을 특히 속격 조사 ‘의’의 출현 여부와 관련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구조적 조사는 보조사와 동일한 분포를 보이며, 양화 효력이나 한정성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조사와 함께 D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희. 1999. 사격 표지와 후치사. 『국어학』 34:31-58.
 김용하. 1990. 국어 명사구의 구조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용하. 1999. 『한국어 격과 어순의 최소주의 문법』. 서울: 한국문화사.
 김용하. 2009. 한국어 조사의 분포와 통합 체계 연구: 부사격 조사를 중심으로. 『언어학』 17:65-89.
 목정수. 2003. 『한국어 문법론』. 서울: 월인.
 임홍준. 2010. 구조적 조사도 핵인가 -임동훈(1991, 2008)을 중심으로-. 『시학과언어학』 19:127-143.
 이정훈. 2008. 『조사와 어미 그리고 통사구조』. 서울: 태학사.
 임동훈. 1991. 격조사는 핵인가. 『주시경학보』 8:119-130.
 임동훈. 2004. 한국어 조사의 하위 부류와 결합 유형. 『국어학』 43:119-154.
 임동훈. 2008. 다시 격조사는 핵이다 -한정환(2003)을 중심으로-. 『형태론』 10:287-297.
 임홍빈. 1997. 국어 굴절의 원리적 성격과 재구조화: ‘교착소’와 ‘교착법’의 설정을 제안하며. 『관악어문연구』 22:93-163.
 최경봉. 1999. 관형격 구성의 구조와 의미. 『국어의 격과 조사』, 743-774. 서울: 도서출판 월인.
 최규수. 1994. 토씨구의 설정에 대하여. 『우리말 연구』 4:91-107.
 최동주. 1997. 현대국어의 특수 조사에 대한 통사적 고찰. 『국어학』 30:201-224.

¹³ 한 심사위원은 이와 같은 ‘특정한 이론 모형들’에 의한 분석의 다양성이 있을 경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본고에 제시된 자료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올바른 지적이긴 하지만, 본고의 주된 관심은 한정환(2003) 식의 분석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밝히고 조사를 핵으로 봄으로써 그 불합리한 바가 해소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자료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 한정환. 2003. 격조사는 핵이 아니다. 『한글』 260:149-182.
- 한정환. 2010. 다시 격조사는 핵이 아니다. 『형태론』 12:281-288.
- Ahn, H.-D. 1988. Preliminary remarks on Korean NP. In E-J Baek, ed., *Papers from the 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 1-15.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Toronto.
- Abney, S. P. 1987. English noun phrases in its sentential aspects. Doctoral dissertation, MIT.
- Bloomfield, L. *Language*. London: George Allen & Unwin.
- Chomsky, N. 1994. Bare phrase structure. In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5*, distributed by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 Heim, I. 1982. The semantics of definite and indefinite noun phras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Jackendoff, R.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ss.: MIT Press.
- Jolly, J. A. 1993. Preposition assignment in English. In R. D. van Valin Jr. ed., *Advances in role and reference grammar*, 275-310. Amsterdam: John Benjamins.
- Kamp, H. 1984. A theory of truth and semantic representation. In J. Groenendijk et al. eds., *Truth, interpretation, and information*, 1-41. Dordrecht: Foris Publication.
- Kang, M.-Y. 1988. Topics in Korean syntax: Phrase structure, variable binding and movement. Doctoral dissertation, MIT.
- Van Valin, R. D. Jr. and R. J. LaPolla. 1997. *Syntax: Structure, meaning and fun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tanabe, A. 1992. *Wh*-in-situ, subadjacency, and chain formation. In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2*, distributed by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 Yang, D.-W. 1996. Issues in the minimalist syntax of Korean. In M.-Y. Kang ed., *Lectures on morphosyntax in generative grammar*, 69-178. Seoul: Hankukmunhwasa

김용하

(760-749)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안동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E-mail: kyocheon@andong.ac.kr

접수일자: 2011. 07. 15
수정일자: 2011. 08. 19
게재일자: 2011. 08. 22